



# 북미 동포 40%가 YTN을 본다

## 캐나다 동포도 YTN을 쉽게 시청할 수 있게 돼

YTN 미디어국 매체관리팀은 지난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북미 동부 일대의 동포방송사 15개사를 방문해 YTN 방송현황과 동포방송사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위성방송, 케이블TV, 공중파, 라디오 등을 통해 YTN 한국어뉴스를 접하고 있는 북미의 동포 수는 약 35만 가구, 100만명에 달해 북미 전체 동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캐나다 거주 동포들도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YTN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주(거주 동포 7만여명) 일대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얼TV(Rogers Digital Cable Ch.624, 사



장: 이장성)에서 YTN 본방송을 실시했고 캐나다 서부지역 대다수의 동포가 거주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동포방송사 측과도 조만간 YTN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경영난으로 마케팅에 소홀했던 DTH(Direct to home) 위성방송 사업자도 최근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상당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성숙기에 접어든 북미 위성방송 사업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포방송사와 좀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남미에도 하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포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YTN 한국어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YTN 윤리강령 선포



24시간 뉴스전문채널 YTN이 노사 공동으로 윤리강령과 10대 실천요강을 채택해 선포했다. YTN 표완수 사장과 우장균 노조위원장은 지난 20일 <YTN 윤리강령>과 <10대 실천요강> 조인식을 열고 전 직원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YTN의 공익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YTN의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들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엄격한 윤리강령 제정을 촉구했고 표완수 신임 사장이 언론 개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이뤄졌다.

YTN 노사 대표가 서명한 윤리강령은 윤리강령 전문과 10대 실천요강, 그리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 포토뉴스



#### 공채 8기 16명 선발

방송기자 10명과 촬영기자 2명, 기술직 2명, 전산직과 마케팅직 각각 1명 등 모두 16명. 특히 방송기자 10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고, 기술직에도 창사이후 두 번째로 여성사원이 탄생했다. 이들 신입사원들은 6월 23일부터 7월12일까지 사내연수와 한국언론재단 위탁교육을 받았다.

#### 뉴스의 현장에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한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정찬배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YTN은 앞으로 현장진행을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다.

### 7월호 HEAD LINE

- 121 ▶ 새로 선보인 프로그램 / YTN 이모저모
- 131 ▶ YTN 가족 - 1초라도 먼저가야
- ▶ 특종상 금상 취재기 - 7년간의 법정투쟁

- 141 ▶ 2003년 공채 8기 - 인사드립니다
- 151 ▶ YTN 한마음대회 개최
- 161 ▶ 토론토 얼 TV 방문기

- ▶ 특집 취재기 - '원전 폐기물 처분장' 현장을 가다
- 171 ▶ 프로그램 탐방 - 생방송 박찬숙의 쟁점토론
- 181 ▶ 프로그램 탐방- 새벽 5시 '굿모닝 코리아'



새로 선보인 프로그램

TV메디컬 건강클리닉

(토: 07:30, 18:30, 21:30, 일: 03:30, 07:30, 16:30, 21:30)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TV 메디컬, 건강 클리닉'은 이처럼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에 갈 여유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진단해 보고 또 알기 쉽게 건강 상식을 전달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TV 메디컬 건강클리닉'은 크게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스타의 건강을 찾아라'와 일요일 방송되는 '심층분석 TV 명의전'으로 나뉘어 진다. '스타의 건강을 찾아라'에서는 바쁜 스케줄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연예인들의 건강

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연예인이 의사를 직접 찾아가 건강 검진, 치료를 받는 형식이다. 출연한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통해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 해주는 '스타의 건강을 찾아라'는 혈액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생활 습관이나 버릇, 행동 등을 보고 출연자에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을 예측하여, 그 예방법을 알려준다.

'심층분석 TV명의전'은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각종 병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요즘,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현대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테마를 선정하고 사례자의 경험담을 통하여,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 민간요법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취재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크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TV메디컬 건강클리닉'은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질병들에 대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CASE 100선! 파워 골프

(매일 : 0:50, 13:50, 21:50)

골프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동익의 골프플러스"가 2003년 6월을 맞아 "CASE 100선! 파워골프"로



새롭게 변신했다.

"CASE 100선! 파워골프"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제 상황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100가지 사례로 엄선하여 레슨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1차 촬영을 마친 파워골프는 셋업 자세, 스윙, 연습방법, 클럽피팅 등을 이동익프로 특유의 재치있고 논리적인 말솜씨로 담아내 아마추어 골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개의 레슨프로그램이 개인의 신체나 스윙구조를 무시한 일종의 "교과서 레슨"이라면 파워골프는 일반적인 레슨 프로그램의 틀을 탈피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 특정한 문제를 찾아내 해결해주는 "족집게 레슨"이라 할 수 있다.

YTN 이모저모

제 5회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개최

YTN은 '경기도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생활속의 환경', '잊혀지는 기억들'을 주제로 한 「제 5회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7월 28일까지 참가 신청 후 8월 22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응모된 작품 가운데 우수 작품은 경기도지사상과 YTN 사장상 등 3개 부문에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시상금액은 2,000만원에 이른다.

제 5회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은 9월 19일 경기도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창조적인 방송영상문화 창달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YTN과 경기도가 공동주최, 한국방송진흥원이 후원한다.



2003년 상반기 벤처디자인상 시상식

대상 - 멀티스크린컴퓨터 (유엠디디지털)

YTN, 전자신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 주최하는 「벤처디자인상」 시상식이 6월 2일 오후 2시 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은 멀티스크린컴퓨터는 본체 하나에 모니터를 여러대 연결하여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 수행 가능하게 만든 멀티스크린으로 전문직 멀티미디어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벤처디자인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됐고 특전으로 YTN과 전자신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대상을 받은 멀티스크린컴퓨터 (유엠디디지털)

YTN 문화체험

'미리가 보는 2004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YTN은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자 2004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개최지인 '그리스'와 성서상의 유적지, 사도들의 발자취가 그대로 숨쉬는 기독교문화, 이슬람문화가 융합된 '터키'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출발하며 8박9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계시관	
■ 포상	
특종상 금상	이동우, 이재홍(사회1부)· '현직검사 소(訴)취하 종용 발굴보도'
특종상 은상	김상우 차장대우, 김정희(사회1부)·국내 사스환자 발생 신속보도 최재민(제작 1팀) 황정엽 방미요청 친필서신 및 녹취 단독보도
특종상 동상	이철근(창원지국), 전재영(부산지국) 화물연대 지도부 기자회견 단독 취재보도
감사패	스티브(국제부) 이라크전쟁 속보 신속보도 기여 정봉택(제보시민) 대전역 새마을호 육교상관 충돌사고 제보...6. 9주
■ 입사	김세호, 김수진, 박소정, 이대진, 전기영, 최영주, 홍선기, 송세혁, 윤현숙, 김재형, 이동규, 이승준 보도국, 남궁세은, 최영훈, 최진욱 기술국, 지민근 마케팅국...6. 23주
■ 퇴사	배철형(부산지국).....6. 6주

■ 승진	노복미 보도국 부국장.....6. 12주
■ 전보	진상욱 편집심의실장 직무대행(부국장 대우)
	신동윤 제작국장 직무대행(부국장)
	박감묵 마케팅국장 직무대행(부국장)
	이재희(이사대우), 조봉환(이사대우), 김사모(국장대우), 주동원(부국장) 보도국 방송위원
	전상신 편집운영부장(부장대우)
	박득송 홍보팀장
	추은호 편집1팀장(차장), 김흥규 편집3팀장(부장대우)
	김호성 앵커팀장(차장대우)
	한영규 사회2부장 직무대행(차장)
	최수호 스포츠부장(부장대우)
	황명수 제작2팀장(차장).....6. 12주
	김선중 편집운영부
조현진, 조승희, 김선희 편집1팀	

권오진(차장대우) 편집2팀	
김태현 편집3팀, 이양희 앵커팀, 임장혁 정치부	
김상우(차장대우), 강홍식(차장대우), 김응건, 오인석 경제부	
천상규(차장대우), 김용섭, 정유신 사회1부	
김장하(차장대우) 사회2부	
이경아 문화과학부	
김상의 스포츠부.....6. 21주	
조승호 정치부.....7. 1주	
■ 부음	박만희(편집운영부) 병고상.....6. 29
■ 회갑	이상경(제작기술부) 부친.....6. 7
	김신영(편집운영부) 모친.....6. 27
■ 출산	정병화(사회1부) 득녀.....6. 13
	신성원(편집운영부) 득남(쌍둥이).....6. 26
	김재학(디지털기획부) 득녀.....6. 26
이정우(제작기술부) 득녀.....7. 2	



YTN 가족 - YTN을 위해서만 제보한다

# 1초라도 먼저가야



이광옥 기자 (대전지국장)

사건 현장에 다른 기자보다 단 1초라도 먼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사건기자라면 대부분 느끼는 일일 것이다. 사건사고의 현장에 일찍 도착 한다는 것은 기자가 부지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보 덕분인 경우가 많다. 또 제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증거이기도 해 더욱 자부심을 갖게 한다.

지난 현충일의 일이다. 놀이기구의 줄이 끊어져 두 사람이 추락했고, 그 화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다는 사회2부 강홍식 차장의 연락을 받았다. 급히 대전동물원으로 출동해 보니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다. 제보자를 찾았더니 제보자가 찍은 화면은 캠코더가 아닌 휴대전화 동영상이었다. 그러나 그 제보자 덕분에 YTN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주위에서 캠코더로 찍은 시민들의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제보 = 기동력 = 신뢰도 = 영향력**

최근 YTN에도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

랬던 것은 아니다. 취재를 하다보면 취재보다는 회사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1995년 YTN이 막 출범해 시청자도 많지 않았을 때다. 대전에서 논산으로 가는 국도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제보가 왔다. 대형사고는 아니었지만 기사가치가 있었고, 다른 방송사들은 이제 시작인지 두 달이 채 안된 YTN의 기동력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 뒤 다시 그해 4,5개월쯤 뒤의 일이다. 중계차가 SNG와 함께 망향휴게소에서 추석 귀성 길을 현장에서 중계방송하고 있었다. 경부선 옥천 부근 건널목에서 열차가 트럭과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제보였다. 고속도로에 있던 중계차를 즉시 현장으로 출동시켜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생중계를 했다. 뒤늦게 도착한 거대 방송사들은 우리의 신속함에 놀랐고, SNG를 이용한 중계에 다시 한번 부러워하기도 했다. 당시 KBS와 MBC 등은 마이크로웨이브가 터지지 않아 중계를 포기했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50분쯤 전화가 왔다. 육교부근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탈선하고 불이 났다는 제보였다. 급히 서울에 긴급뉴스 문발을 의뢰하고 확인취재에 들어갔다. 2시 뉴스에 정찬배 기자가 열차사고가 났다는 긴급소식을 전했고, 이어서 전화를 연결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다행히 사건현장이 가까워 다른 사보다 일찍 화면을 보낼 수도 있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은 거의

확실히 약간의 보충취재만으로 전화연결까지 가능했다.

**기자보다 더 기자다운 제보자 정봉택**

1995년 논산교통사고 제보를 시작으로 그해 경부선 건널목 열차사고에 이어 이번 호남선 새마을호 탈선사고를 제보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다. YTN을 위해서만 제보를 하는 사람, 기자 못지않게 사고발생 시각과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취재해서 제보해주는 사람은 바로 대전시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봉택씨였다. 아들이 YTN 기자가 되면서 당연히 YTN에청자가 되었고, YTN의 단골 제보자가 된 분이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제보가 더 있었는데 항상 기사 가치가 있는 사건사고를 제보해 우리는 그 분을 아들보다 더 부지런한 기자(?)라고 불렀다. 아들이 본사로 올라갔지만 그 분은 항상 대전 YTN에 정찬배 기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시청자로 제보를 해주고 있다. 먼저 제보를 하고 나중에 신분을 밝히시는 습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제보가 다 유용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보가 많고, 때로는 다른 회사에 몇 차례 제보했다가 기사 가치가 낮아 채택되지 않았거나,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다시 보도해 이목을 끌기 위한 제보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봉택 선생님의 제보는 더욱 값진 제보임에 틀림없다. 다행히 감사패를 드리게 됐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면 좋겠다.

특종상 금상 취재기 - 고소인 매수한 검사

# 7년간의 법정투쟁



이동우 기자 (사회1부)

5월 초 검찰출신 모 변호사를 만나 점심을 먹던 중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들었다. 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아무도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보기에는 꽤 큰 기사인데

왜 그냥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 그런데 해당검사의 이름이나 정확한 내용 등은 자신도 잘 모르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을 찾아가 최근 재정신청 관련 결정을 모두 뒤져봤다. 참고로 대검, 대법원 출입기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열람을 하면서 주요한 사건의 경우 기사를 쓰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기자가 특정 결정사건을 요구하지 않는 한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최근의 결정사건을 모두 뒤진 끝에 3월27일 문제의 재정신청 관련 결정을 발견했다. 조모 부장검사가 96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뽕소니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피의자인 조인준씨를 불법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는 사건이었다. 고등법원에서는 불법체포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담당검사가 긴급체포여건이 되지 않는데 고압적으로 불법체포한 것이 명

백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결정이 난지 1달 이상이 지난데다 곧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이 날 예정이어서 그때 쓰려고 선고기일이 잡히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담당재판부를 찾아갔더니 고소인인 조인준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고생고생 끝에 검사를 상대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어쩌서 고소를 취소했을까. 이것은 조인준씨를 매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5월 16일 금요일 조인준씨와 통화를 한 결과 부산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울가서 말하겠다는 것이다. 조씨가 부산에서 돌아온 일요일 저녁 마침 일요야근인 이재홍 기자가 조인준 씨를 서울 방화동 자택에서 만났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조씨를 뽕소니 사범으로 지목해 7년간 법정투쟁을 하게 만든 모 방송사 카메라맨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는 통지서가 토요일에 도착해 조인준씨는 그야말로 검찰에 대해 분기탱천해 있는 상태였다.

조씨는 이 카메라맨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뽕소니 혐의를 덮어쓰고 7년간 법정투쟁을 해서 무죄를 받아냈기에 누구보다도 이 카메라맨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 기소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원했던 고소취소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부장검사의 동생이 찾아왔고 수천만 원을 주겠다고 애원만 강요만 해서 할 수 없이 고소를 취소해줬다는 것. 그랬더니 위증한 친구를 불기소하는 등 뒤

통수를 친다며 분개해했다. 그랬구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돈으로 매수해 고소를 취소시킨 것이었구나. 다음은 담당검사의 반론을 신는 것이 문제였다.

파급효과가 가장 큰 월요일 오전부터 방송을 내기로 하고 출근하는 대로 담당검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가를 내고 안 나오는 중이라고 한다. 어떻게 통화를 했지만 얘기할 가치가 없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담당검사는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전 10시 방송이 나가자 검찰과 검찰 기자실은 발각 뒤집혔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검찰개혁의 시작은 내부 사정부터라고 강조한 마당이라 내부감찰이 강도높게 진행되고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사가 기사를 받아 비중 있게 기사를 처리했고 담당부장검사는 조만간 퇴직할 예정이다.

물론 해당 검사에게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당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면 굳이 거금을 쥐 가면서 고소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감히 검사를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긴급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까 자문해 볼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들이 사건관계인을 대할 때 좀더 겸손해지고 친절해진다면 우리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지검은 최근 민원인실에 컴퓨터와 TV를 설치하고 잡지를 비치하는등 서비스정신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양이다.



2003년 공채 8기 - 인사드립니다

# YTN을 짊어질 새 얼굴



**가능성을 믿어준 것을 감사**  
김 세 호(방송기자) 75. 8. 14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평범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남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기자라는 직종을 택했다. YTN이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데 가장 훌륭한 직장이라고 확신한다. 나의 작은 가능성을 믿어준 YTN에 감사하고 있다.



**많이 혼내주십시오!**  
김 수 진(방송기자) 80. 6. 18  
숙명여대 영문학과

물고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비린내 날 정도의 생생한 뉴스를 전해주던 YTN에 입사하기를 언제나 고대해 왔습니다. 아직 모든 게 신기하고 열렬하기만 합니다. 언제나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 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많이 혼내주십시오!



**제대로 고생할 준비가 됐구나**  
박 소 정(방송기자) 78. 9. 16  
고려대 국어교육과

매일매일 자신에게 도전했습니다. 좌절하고 지치고, 다시 또 다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달게 된 YTN 수습짜지, 아침마다 독독 쓰다듬어줍니다. 이제야 제대로 고생할 준비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슴 크게 들이마시고 주먹 꼭 쥐겠습니다. 늘 웃음 한 조각 들고 뛰어다니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름값 하는' YTN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 건(방송기자) 76. 8. 12  
서강대 정외과

YTN 선배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 체세운 건, 제 이름 뜻대로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YTN에 입사했습니다. 선배들의 활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끄러워 않은 YTN 기자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승선의 열정과 다짐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출항하라! YTN호여!



**알면 사랑한다!**  
전 가 영(방송기자) 80. 1. 16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돈구름만 잡고 살던 백조시절, 가장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있는 힘껏 세상과 부딪치고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턴을 거치면서 확실히 깨닫게 된 '알면 사랑한다'입니다. YTN에 꼭 필요한 기자, 깨어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사랑하겠습니다. \*\*o\*\*



**'락' 처럼 일하고 또 '메탈' 처럼 일하는**  
최 영 주(방송기자) 79. 9. 24  
서울대 지리학과

어쩌다보니 선배들 사이에서 저우림 '최'로 알려졌습니다. 3개월간을 백수로 방황하던 시절, 제 일과는 방 안에 꼭 바쳐 24시간 YTN을 모니터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세 네번씩 혹은 그 이상, TV로만 봤던 존경스런 선배들과 같이 일하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평소에는 락(Rock)처럼, 시간이 타지 않으면 헤비 메탈(Heavy Metal)처럼 일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



**"꼭 가고 싶습니다!"**  
홍 선 기(방송기자) 76. 5. 24  
고려대 신방과

모 드링크제 광고를 보셨습니까? "꼭 가고 싶습니다"고 외치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만큼 꼭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첫 발이라 생각하며 진정한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Young (언제나) 젊고, Talented 능력 있는 News guy 뉴스 맨이 되겠습니다.



**YTN호여 출항하라!**  
송 세 혁(방송기자 강릉) 76. 9. 10  
성균관대 정외과

두 달간의 긴 타일을 거쳐 드디어 YTN호에 승선하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바다냄새와 파도는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YTN호의 새로운 출항만이 남았다. 첫 승선의 열정과 다짐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출항하라! YTN호여!



**링 위에서 죽더라도 라운드 걸보다는 복서의 삶을 살자**  
윤 현 숙(방송기자 부산) 80. 2. 20  
한양대 영어교육학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싶어 기자를 꿈꿔왔습니다. 기자로 첫 발을 디딘 지금, 모든 것이 알뜰 열망하기만 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고집시켜 놓고 보면 YTN, 그 링 위에서 오르게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부딪치고 깨져가며 온 몸을 땀으로 적실 때야 비로소 YTN 기자가 된 것을 실감하겠지요.



**동지를 뜨게 됐습니다**  
김 재 형(스포츠 기자) 74. 11. 23  
숭실대 영문학과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지난 2년간의 수업을 낙방 끝에 YTN에 이제 동지를 뜨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어디선가 YTN 기자로서 당연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기외 깡다구로 뚫돌 뭉친 이승준**  
이 승 준(촬영기자) 76. 12. 19  
한양대 연극영화과

기외 깡다구로 뚫돌 뭉친 이승준입니다. 아직은 뷰파인더로 바라보는 세상이 낯설지만 마음 속엔 열을 같은 차가운 이성, 가슴속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감성으로 사각의 프레임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이 동 규(촬영기자) 74. 7. 9  
경성대 신방과

2003년 6월 18일 오후 5시경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YTN입니다. 최종합격을 축하합니다! 2달간의 전형기간과 지난 4년간의 노력과 고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왜 촬영 기자를 위해 고생을 했는지? 결과는 촬영기자로써의 자부심과 사명감 때문이다. YTN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 이치!!!!



**일에는 민첩, 말에는 신중**  
남 궁 세 운(방송기술) 78. 9. 20  
수원대 정보통신공학과

YTN은 제가 선택한 회사이며 방송 기술인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게 해준 곳입니다. 꼭 밝은 미래의 YTN을 만드는 데 공헌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 되새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님들, 오래 기다리셨죠?**  
최 영 훈(방송기술) 78. 5. 18  
아주대 전자공학 졸업 예정

공채 8기가 YTN의 발전에 있어 기록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송 기술인으로써 제가 발휘해야 할 역량은 변모하는 YTN의 기술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배워 나간다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기술 선배님들, 오래 기다리셨죠? 막내들... 곧 달려가겠습니다.



**신입사원 파이팅! YTN파이팅!!**  
최 진 옥(전산) 77. 5. 4  
숭실대 컴퓨터학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활기찬 동기들과 함께 일하여 기쁩니다. 저희들에게 거는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YTN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파이팅! YTN파이팅!!



**뜨거운 열정, 역동적인 회사**  
지 민 근(마케팅) 73. 3. 23  
한국외대 경영정보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밖에서 본 YTN은 타 방송과는 무엇이 구별되는 전문성과 차별성을 지닌 세련된 방송입니다. YTN만의 세련됨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흘려온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고, YTN은 그러한 선배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 Welcome to the real world



공채 8기 필기시험일, 시험장으로 모인 7기들의 얼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웃음이 배서시 흘러나왔다. 열

마나 기다렸던 후배인가. 대부분 모처럼 맞은 후일을 반납할 정도로 우리는 "후배 후보"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이종구는 시험 보는 후배들 목마르겠다며 생수까지 챙기는 평소답지 않은 행동까지 보였다. 그리고 두 달, 우리들은 막내를 즐겼다. 아싸!

**1. "동기의 힘"**  
입사 초년병일 때 선배들이 늘 말씀하셨던 것이 동기사랑입니다. 이제 저도 그 뜻을 알 것 같은데요. 힘든 전형을 함께 치르고, 현장에서 "기자"를 좌충우돌 함께 배워나가는 동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마 곧 알게 될 겁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동기를 쌓으시도록. "동기의 힘" - 여러분의 평생 재산이 될 것입니다.

**2. 기본을 갖춘 사람**  
이제 걸음마를 떤 7기로서 선배들에게 송구스러우데요. 요즘 신입 기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다보면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명을 띤 기자는 누구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강한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으로서선 선배 기자들은 물론이고 취재원 모두가 인생의 선배입니다. 기본을 갖춘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3. 인내와 끈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정말 엄청난 노력과 끈기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기자로서의 보람보다는 힘든 일이 다반사이지요. 열심히 하는데도 실수투성이고, 선배들의 가르침은 가족하다 못해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세요. 결국은 나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자 상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노력한다면 멋진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써 봤는데요,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24 hour, 7 weeks. 여러분의 꿈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곳, YTN 가족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7기 군기반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홍상희 (사회 1부)



YTN 한마음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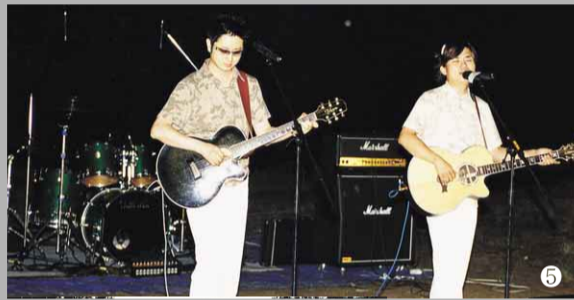


YTN 한마음대회가 6월28일(토) 경기도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표완수사장을 비롯해 200명의 사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미니축구대회와 사장과의 대화 그리고 신입사원 공연, 사장주재 지국장회의,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새내기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에 많은 박수가 나왔고 참가자들은 모두 역시 "디지털 세대"라며 찬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캠프파이어에서는 '여행스케치' 등 초청가수들이 한껏 흥을 더했고 사원들의 장기자랑으로 밤은 깊어만 갔다.

사원들 모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사원간의 단합을 다지는 뜻 깊은 하루였다며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YTN 한마음대회는 기자협회지회와 카메라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편 표완수 사장은 회사차원에서 이 같은 대회를 1년에 한차례 쯤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마음을 향한 첫 걸음

"입사 이래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캠프파이어를 끝낸 뒤 한 후배가 기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선후배 기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한강 강변을 뜨겁게 달군 밤. 송용차 전조등 불빛으로 땅거미 진 야외무대가 환하게 깨어나면서 강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진 초청가수, 여행스케치의 어쿠스틱 기타 선율은 사원들의 가슴 깊이 숨죽여온 열정과 끼에 불을 지폈다. 보도국장, 기자협회장, 카메라기자협회장, 공채 8기 대표의 공동 점화로 참나무 장작더미가 벌겋게 타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오해와 아집으로 꽉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모처럼 열고 강바람에 들떠 가락에 취해 맘껏 흔들고 실컷 마시면서 하나가 되었다. 그토록 우려하던 장대비도, 내심 염려하던 마찰도 없었다.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준 선후배들의 도움이 컸다. 김관상 국장과 수호, 형근, 종수, 양현, 학묵, 종호 선배를 비롯해 비빔 신보 녹음 일정 속에서 짬을 내 준 여행스케치의 병석과 준봉, 신명난 댄스파티를 연출해준 디스크 트럭, 그리고 희철, 태운, 승은, 순표, 범석, 재훈, 승환, 병식, 정원, 순욱, 태진, 경재, 봉국, 보선, 특히 개콘을 뺏치는 풀티 무대를 선사해준 8기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모든 이들의 땀이 있었기에 2003년 양평의 밤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 교 준 (기자협회 지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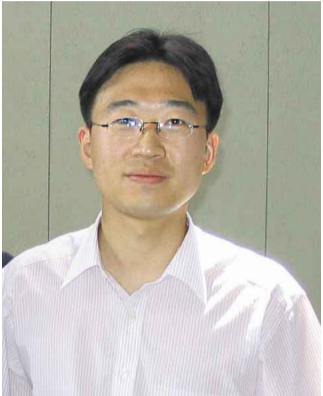


- ① ② ③ 새내기 공연 ④ 지국장 회의 ⑤ 여행스케치 공연
- ⑥ 환호하는 새내기 ⑦ ⑧ ⑨ 가족과 함께 ⑩ 사장님 건배제의
- ⑪ 새내기 구두표 증정식 ⑫ 캠프파이어 점화식



## 토론토 일 TV방문기

## 토론토의 한국어 방송



주현득 (매체관리팀)

6월 1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부터 시작된 동포방송사 방문은 2주 만에 15개사를 방문해야 하는 짝 짜여진 일정 때문에 1박 2일 일정으로 매일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11일 애틀랜타, 12일 시카고 일정으로 마치고, 13일 밤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

창문너머로, 어둠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안식을 더하고 있었지만 나는 예외로 이런 저런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토론토 가면 마스크를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비행기는 좋은 날씨 때문에 예정보다 20분정도 연착했다. 헬레벌릭 공항 출입구로 나가니, 수업을 기른 60대 초로의 한국인이 필자에게 손을 내밀며 말문을 열었다. “반갑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소?”

이렇게 시작된 쿠바의 카스트로를 연상케 하는 열TV 이장성사장과의 만남은 사스보다 싸늘했지만, 한국음식점에서 소주 한두 잔을 주고받자 서먹함은 녹기 시작했

다. 이장성 사장은 YTN 뉴스포맷에 대해 불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점은 YTN뉴스가 박력이 없다는 것이다. 열TV는 현지시간으로 아침 7시 20분부터 7시 55분 사이에 YTN24를 편성하고 있었다. 출근하기 전에 한국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동포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장성 사장은 동포들의 잠을 확 깰만한 박력 넘치는 Intro 화면, 풍부한 앵커의 표정 등을 요구했다.

이튿날 아침, 열TV 방송사를 방문하였다. 열TV는 토론토한인회의 창고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 이장성 사장은 DVCam(Digital Video Camera) 시스템의 편집실, 제1, 제2스튜디오, 업무국 등의 공간과 스태프들을 소개해 주었다. 인상적인 것은 스튜디오의 배경화면이었는데 모두 목판에 유화물감으로 그려졌으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생각해도 될 만큼 훌륭했다.

이장성 사장은 ‘토로’와 ‘토산’라는 한국인2세 스태프들에게 프로모션 테이프를 시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비전문가가 봐도 열TV의 프로모션 테이프는 상당히 훌륭했다. 무난한 컴퓨터 그래픽, 적절한 배경음악 등 꽤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으로 이장성 사장의 부인이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며 토로와 토산이 이장성 사장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방송사업을 돕고 있었다.

식사 후 사모님과 담소를 나누며, 오늘의 이장성 사장

과 열TV가 있기까지 숨은 역사를 알 수 있었다.

이장성 사장은 1938년 생으로 미국 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결혼한 후, 먼저 캐나다로 이민 온 형을 따라 1970년대 초반에 이민을 오게 된다. 이장성 사장은 타고난 끼를 못 속이고 당시 동포수가 이민여명에 불과한 토론토에서 ‘맹진사댁 경사’라는 악극공연을 기획해 동포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장성 사장은 이후 동포사회를 위해 라디오방송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애써 장만한 집을 팔아 라디오방송을 시작하였고, 10여년을 운영하다, 2001년 9월에 케이블TV를 개국하게 됐다.

토론토를 떠나며 토론토의 동포들은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돈으로 월 1만 6천 원 정도만 내면 하루 19시간 방송하는 한국어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방송이 이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 특집 취재기 - '원전 폐기물 처분장' 현장을 가다

## 넘비를 극복한 나라들의 비밀은?



김영수 (경제부)

넘비 (nimby ; not in my backyard) 현상은 80년대 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신조어다. 특히 핵 폐기물 처분장을 비롯해 쓰레기 처리장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집 앞에는 안된

다는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의 현상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물론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핵 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핵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상당부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나온 폐기물을 관리하는 처분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취재팀은 프랑스와 일본의 핵 폐기물 처분장을 다녀와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파리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세시간 가량 고속도로를 달리면 프랑스의 두 번째 핵 폐기물 처분장, 로브 처분장이 나온다. 지난 69년 세워진 라망쉬 처분장이 핵 폐기

물로 가득 차자 지난 9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푸른 숲과 넓은 들이 펼쳐진 전원도시 로브에는 아직도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처분장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는 우연히 지역 주민들을 몇 명 만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이 시설에 대해 불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전문 연구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주변 지역의 물과 공기 목초등을 살살이 뒤져 검사하고 있다며 은근히 자랑까지 늘어났다. 한 아주머니는 처분장이 들어선 후 마을 인구가 늘고 도로가 생기는 등 살기 좋아졌으며 만족해 했다.

그렇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핵 폐기물이 무서워 주민들의 85%가 반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주민들을 설득했고, 처분장 부지 선정과 건설 운영과정에 모두 참여시켜 믿음을 심어 주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연구소, 시설 책임자등이 참석하는 정보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

일본 혼슈 북쪽 아오모리현의 룩카쇼 처분장. 이곳엔 핵 재처리 시설과 핵 융합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대규모 원자력 시설단지다. 인구 만 2천명의 1인당 주민소득은 3만 2천달러 일본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보다 많다. 이 마을 촌장은 이 시설이 들어선 이후 소득이 세배로 늘었으며 농업과 어업등 1차 산업 중심에서 과학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 지역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다. 특히 지난 70년대 이 지역 해안가에 원자력 선이 침몰한 후 5년간 물고기를 팔 수 없어 생활고가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외 시찰을 추천하는가 하면 수 천억원의 지역 지원을 약속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로 결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역시 지난 92년 가동을 시작한 룩카쇼 처분장은 지금도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지역에 있는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처분장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마을 곳곳에 방사선 전광판을 세워 주민들이 바로 바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냈다. 특히 룩카쇼에 있는 전 가정에 TV 단말기를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훈련까지 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일본은 모두 처분장 주변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오지 않았는지 끊임없는 조사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검사 결과는 반드시 정기 간행물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지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70년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미량이지만 누출됐다고 솔직히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지만 지금도 공개는 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0년 우리정부는 안면도에 주민 몰래 폐기물장을 지으려다 실패했고 지난 94년에는 굴업도가 선정되기는 했으나 부실 조사로 판정 받고 건립이 취소된바 있다.

이번 특집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등 다른 선진국의 현황과 사례, 특히 실패 사례를 담지 못했다는 점이다. 함께 고생했던 영상취재부의 정희인 선배와 황광모 후배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YTN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본격 시사 토론 프로그램

#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중계차 준비됐습니까?, 장관님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이 조금 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아 5분전입니다. 시청자 전화연결 이상 없는 거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가 될 무렵 2부조와 2스튜디오는 매우 부산해진다. 50분 남짓한 ‘뜨거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진다.

“1분전, 30초전, 10초전, 자아 넘어옵니다. 타이틀 스타트, 앵커 큐!”

“박찬숙 선배, 출연자에게 마지막 질문하시죠. 뒤에 시보 이어집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MC로 컷, 클로징 하십시오”

“저 안에서 PD가 그만 끝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매번 이런 식으로 50분이라는 시간은 1분, 1초처럼 긴장 속에 금세 지나가버린다. 박찬숙의 쟁점토론은 기존의 심야 시간대에 주로 편성됐던 토론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낮 시간대로 옮겼다는 점이 새롭다. YTN만이 갖고 있는 유연성 있는 편성전략이고 그 만큼 차별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시사 토론 프로그램 진행의 베테랑인 ‘박찬숙 앵커’가 특유의 후각과 재치로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사회 여론형성층을 위주로 한 시청자 저변 확대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토론 프로그램은 요즘 각 방송사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다.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토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토론 프로그램은 종합미디어인 TV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서 다른 제작물에 비해 제작비도 적게 들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르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은 YTN에 가장 적합한 제작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반 시청자들에게 ‘방송토론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 때우기 식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져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걸핏하면 긴급대담이니, 특

별좌담이니 해서 특별 편성된 각종 프로그램들이 토론의 형식을 빌려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방송돼온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박찬숙의 쟁점토론’은 “토론은 지루하고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뜨거운 주제, 뚜렷한 입장을 가진 패널, 노련한 진행자, 이 3가지는 ‘박찬숙의 쟁점토론’을 이루는 밑그림이다.

### 첫 번째, 핫이슈 선정!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힘찬 출근이지만 임종렬 차장과 이광엽 기자는 다른 사람의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베이스를 스크린하고 신문보기에 푹 빠져있다. 이번 주 아이템을 골라내기 위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과연 이런 주제가 국민적 관심사인가? 전문가의 진단이나 좀더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가? 혹시 다른 방송에서 다른 주제였거나 미리 방송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의 핫이슈를 골라내다보면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첫 방송 주제로 삼았던 ‘서열과피바람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부터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사스, 우리는 안전한가’, ‘치솟는 아파트 값 이대로 둘 것인가’, ‘화물대란 무엇을 남겼나’, ‘4강대사 초청=북한핵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호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만금간척사업 논란’, ‘스크린쿼터 폐지냐, 존속이냐’, ‘특별검사제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핫이슈로 떠오른 사안을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주제로 선정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주간의 뉴스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검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 두 번째, 토론자 섭외

아무리 재료가 훌륭하다 해도 이를 소화해낼 요리사가 없거나 시원치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없는 것

이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주제가 선정되면 제작진의 고민은 과연 그 분야에 누가 가장 정통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스크린 해 섭외에 나서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민감한 주제와 직접 관련된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바라지만 간단한 인터뷰나 기고는 해 줄 수는 있어도 출연해서 멘트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전화를 붙들고 수십 차례 섭외 끝에 패널이 섭외되는 게 보통이다.

### 마지막으로, 진행자의 역할!

박찬숙 앵커는 쟁점토론에 있어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다. 한국의 ‘바바라 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만 제작팀이 보기에는 그 이상이다. 스튜디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앵커의 깔끔한 진행은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으로 이어지고 YTN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녀(?)는 ‘간간한’ 질문공세로 토론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론자와 약속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간간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녀만의 개성은 시청자들을 머물게 하는 마치 ‘마법사의 손’이요, 순간적인 재치는 방송사고를 줄이는 ‘마이터스의 손’이다. 30년 가까이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몸에 밴 노하우일 것이다.

박찬숙의 쟁점토론은 이런 3가지 밑그림을 바탕으로 쟁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가능한 한 속도감 있는 진행,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밀도 있는 구성으로 까다로운 시청자의 눈을 잡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튜디오가 조금 더 넓었으면, 러닝타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생방송 박찬숙의 쟁점토론”이 YTN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건과 격려를 부탁한다.

이 선 영 (“박찬숙의 쟁점토론” 작가)



프로그램 탐방- 새벽 5시 '굿모닝 코리아'

# 니들이 '굿모닝 코리아' 를 알아?



모 TV방송사의 뉴스 예고를 보면 <한 시간 빠른 뉴스, 000뉴스>라고 한다. 하지만 이 타이틀을 무장해제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바로 '굿모닝 코리아' 다. 굿모닝 코리아의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브라운관을 튀어나와 시청자를 만나는 시간은 새벽 5시, 새벽 6시에 첫 전파를 타는 타 방송사 뉴스보다 그야말로 <한 시간 빠른 뉴스>다. 전날의 주요뉴스는 물론이고 국내외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 사고들을 종합해 어느 방송사보다 먼저 전달한다. 총 5부로 구성된 30분 단위 뉴스가 '굿모닝 코리아' 라는 이름을 걸고 150분 동안 숨 가쁘게 달려간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새벽 4시, 사무실에 들어선다. 아침 햇살이 회사마당에 꽃히기도 전인 꼭두새벽이건만 선배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굿모닝 코리아 1부와 2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잠에 덜 깨 심상치 않은 모습도 아주 간혹 보이기도 한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굿모닝 코리아 1, 2부의 전략은 한마디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바로 이것이다. 굿모닝 코리아의 '한 시간 빠른' 전략은 시청자를 모은다. (The early news catches the TV audience). 이것은 1부와 2부 시청률이 평균 '1' 대를 부담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또 이 '한 시간 빠른' 전략은 그 날의 주요뉴스를 선점 보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즉 빠른 뉴스라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국내 뉴스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다.

1, 2부가 한 시간 빠른 뉴스로 승부를 건다면, 3부에선 국내의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는 미디어 브리핑 코너가 있다. 타 방송사가 조간신문만을 다루는데 비해 미디어브리핑에서는 온라인 뉴스도 다룬다. 평균 3~4개의 조간신문 아이템들이 끝나면 2~3개의 온라인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다. 현덕수 선배의 지적이며 순발

력 있는 진행은 바로 이때 유감없이 발휘된다. 현선배는 온라인 기사를 직접 Pick-And-Click하며 진행하는데,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온라인상의 불완전함을 특유의 침착함으로 허물어버린다. 때로는 더듬더듬, 컴퓨터의 스크롤을 내려가며 온라인 기사를 전달하는 현선배의 진행은 팽팽한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함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신뢰를 준다. 생방송의 묘미까지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때 유현주 선배를 빼뜨릴 수 없다. 개편이전 코너였던 경제와이드에서 어려운 경제이야기를 부드럽고 쉽게 풀어갔던 선배의 노련미는 5부 문화출연코너에서도 빛을 발한다. 특히 김정환 교수의 책임기 진행을 위해 매주 한 권의 책을 어김없이 소화해내야 하는 절대 쉽지 않은 특명을 절대 완수한다.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두 5부로 구성된 굿모닝 코리아는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목표를 가진다. 밤새 올라온 주요 뉴스들은 빠뜨리지 않고 보도하는 것, 그것이 굿모닝 코리아의 큰 틀이다. 그 큰 틀을 구성하는 다양한 꼭지들은 다음과 같다. 헤드라인, 이 시각 주요뉴스, 밤사이 사건사고를 종합한 119 상황실, 출근길 교통정보, 뉴욕서 직접 전해오는

미국증시, 간추린 경제단신, 스포츠 소식, 날씨 등 실생활 정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특히 날씨는 김지현 선배의 노고가 돋보인다. 스튜디오를 거부한 방송, 아침이슬에 젖은 풀잎의 싱그러움까지도 그대로 전한다.

개인적으로 굿모닝 코리아에서 주목할만한 꼭지를 꼽으라면 단연 굿모닝 코리아 5부의 문화코너다. 왜? 색다르기 때문이다. 문화뉴스는 '언론의 유령' 으로만 떠돌다는 속설이 있는데, 굿모닝 코리아에서 이런 속설은 (강모 선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 안 되는' 얘기다. 5부에서 문화아이템을 빼면 그야말로 뉴스는 시체가 된다. 최근 들어 방송계 안팎에서 뉴스의 연성화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의 아이템들이 '정보'와 '재미'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시청률을 의식해 '재미'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저널리즘'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굿모닝 코리아 5부에서는 뉴스 연성화의 색다른 시도가 엿보인다. 말초적 아이템으로 시청자 발목잡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 국내 최초의 문화운동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 거창한가? 하지만 사실이다. 매주 월요일 좋은 책을 엄선해주는 '김정환의 책임기' 부터 화요일 김홍남교수의 '문화재 이야기', 목요일 조용현 교수의 생활 속 동양학 이야기, 금요일 일상의 디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주는 김민수 교수의 '문화디자인' 까지... 뉴스 속 문화코너를 이처럼 적극 강화시킨 보도프로그램은 국내선 처음이다.

굿모닝 코리아에서 다루는 문화아이템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그저 우리네 삶과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문화적 시각에서 다시 둘러본다. 청계천 복원 사업 공사가 사회현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는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시 건설 30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복원사업을 벌인 예를 들어 복원사업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그런가하면 이라크전이 초입기에 들어간 때에는 동양학 관점에서 전쟁의 양대축이었던 부시와 후세인의 악연도 다뤘다. 그뿐인가. 구세대 신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호기심에 기웃거려봤을 남녀간 궁합도 논했다. 청춘 남녀 데이트 장소로 손꼽히는 미사리 라이브 카페촌도 문화아이템서 예외일 수 없다. 미사리 카페촌의 국적불명의 불쌍사나운 건축물을 둘러보며 우리의 잘못된 건축문화를 비틀어 보기도 했다.

## 마지막 짧은 私談

입사한지 일년 것 넘는 막둥이에게 굿모닝 코리아를 소개하는 원고를 과감히(?) 맡긴 선배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 아마 더 공부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었을까 싶다. 사실이 글을 쓰며 굿모닝 코리아의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좀 거창한 클로징이나, 꼭 하고 싶은 말이어서 이 곳에 적는다. 굿모닝 코리아가 변화를 쫓는 빈 배가 아니라 변화를 품는 거목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며... 이만 총총



박소영 (편집3팀)